

이명박 대통령 영광원자력본부 방문

이명박 대통령이 12월 4일 영광원자력본부(본부장 심규열)를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영광원자력본부 제3발전소 회의실에서 주호영 특임장관, 지식경제부 김영학 차관, 박준영 전남도지사, 이낙연 국회의원, 정기호 영광군수, 김쌍수 한전사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 김종신 사장으로부터 우리나라 원전현황 및 건설능력 등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 일행은 김종신 사장의 안내로 6호기 터빈룸과 사용후연료저장조 등의 시설을 둘러보고, 주제어실(MCR)에 근무중인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본관으로 이동해 내·외빈을 비롯한 직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우리나라 원자력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제는 해외수출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심에너지인 원자력의 해외 수출을 강조하였다.

이 대통령의 이번 영광원전 방문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87년 10월, 한전과 현대건설이 영광원전 3·4호기 시공계약을 맺었을 당시에 현대건설 사장으로 영광원전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KEA

